

불황에 빛난 광주 광산업

글로벌 금융 위기·수출 환경 악화 불구
올 매출 1조2천억 전망 ... 작년비 28% ↑
고용인원·업체수 늘어 지역경제 견인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환경이 크게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광산업의 올해 예상매출액이 지난 해보다 28% 증가해 1조2천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세로 보이고 있다. 올해 320개에 이어 내년 345개, 2010년 37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매출증가는 원·달러 및 원·엔환율 상승에 따라 원재료 수입에 비해 완제품을 수출해 벌어들인 이익이 크게 늘었고, 광통신부품 완제품과 LED칩 등 관련된 핵심부품의 수출물량이 급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타 케익·쿠키집 등장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달로와요' 매장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4일 쿠키·초콜릿·빵·케익 등으로 만든 집을 선보이고 있다.

光銀 자영업자 특례보증

신보재단 통해 최고 2천만원까지

광주은행이 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자영업자 유통성 지원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한다.

지원하게 되며,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소기업, 소상공인이다.

광주시, 2단계 테크노파크 사업 추진

내년 예산 109억 확정

광주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산·학·연 사업주체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2단계 테크노파크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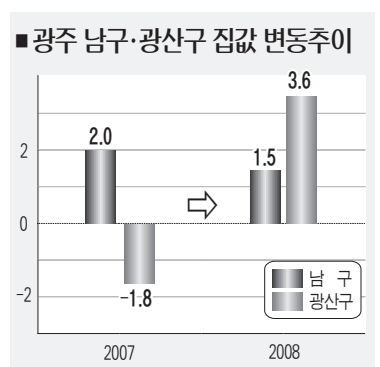
업화, 시장진입에 이르는 기업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창업후 보육지원과 기술경영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등 5개 사업을 담고 있다.

광주 집값 약세 ... 거래도 한산

남구는 주춤 ... 광산구·북구는 오름세 전환

국민은행 자료 분석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광주지역의 실질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도 급감하는 등 주택시장이 팽팽 얼어붙었다.



세가 동반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북구는 집값이 평균 1.6% 올라 광산구와 함께 1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광주·전남 제조업 '고용 한파'

'내년 채용 계획' 10곳 중 1곳 불과

광주상의 150곳 조사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신규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는 10개 중 1개에 불과했다.

6%, 화학·고무·플라스틱업종 - 93.8%, 1차금속 및 조립금속업종 - 85.0%, 음식료품업종 - 80.0%



광주지방국세청 창의학습 동아리 연구 발표

조사 1국 'Bill Analyzer'팀 최우수상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기주)이 지난 3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08년 하반기 창의학습동아리 연구결과 발표대회'에서 조사 1국 'Bill Analyzer'팀(팀장 박병기)이 '조사분야 업무량 감축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항상을 위한 연말정산 납세서비스 제공방안'은 우수상을 받았다. 이 방안은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하고 이해하기 쉽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Inbeest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across different districts like Ansan, Jeonnam, and Gwangju.

Advertisement for IONIA water purifiers, highlighting a 1+1 promotion and listing various models and their prices.